

##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2004 Edition

Summary in Korean

---

### 교육 동향: OECD 지표 - 2004 년판

(한국어) 번역

경제·사회여건이 변동하면서, 교육은 한 개인과 국가의 성공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에 접하게 됐다. 인적자본이 실업과 저임금 해소에 주요소로 확인된 지는 이미 오래이지만 인적자본이 건강 향상 및 증진된 복지의식을 포함한 상당폭의 비경제적 수익에 또한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검증 역시 현재 등장하고 있다.

교육의 수익이 확증되면서, 초 유년기부터 장년기까지의 모든 연령자는 대폭 늘어난 학습 활동기회에 참여를 확대하였다. 학습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정부의 과제는 주어진 학습 기회에 대등한 실제 동태적 요구가 비용효율적으로 충족되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다.

*교육동향 - OECD 지표 2004* 에 풍부히 기재된 교육제도 성과에 관한 지표는 가장 최근 것으로 서로 비교가 가능한 한편, 교육전문인의 합의를 거친 국제차원의 교육현황 평가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 지표들은 교육에 투자된 인적·재정적 자원, 교육 및 학습제도의 실행과 변천, 그리고 교육투자의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OECD 국가의 학업 기간

- 현행 교육프로그램의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 OECD 국 성인 평균 학력은 11.8 년이다. OECD 평균 학업기간 수준이상을 기록한 18 개국은 각각 평균이 11.8 -13.8 년 사이에 있고 나머지 12 개국 경우, 국가간 차이는 더 두드러져 최저 7.4 년에서 11.8 년 사이에 있다 (표 A1.1).

노동시장 진입의 성공에 필요한 기본 자격

- 20 개 OECD 국가 중 17 개국의 데이터 경우, **고졸자** 비율이 동 연령층의 70%를 상회한다. 덴마크, 독일,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경우, 고졸률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나머지 비고졸자가 뒷전에 남아 사회적 소외를 겪는 위험이 없게 배려해야 한다 (표 A2.1).
- 25-34 세 연령층과 45-54 세 연령층의 학력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 고졸자 비율은 증가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급격히 이루어졌고, 전 국가의 3 분의 2 경우, 가장 젊은층의 고졸비율은 70-95% 사이에 있다. 통상 저조한 교육 수준을 보여 왔던 국가 역시 경향을 따라가는 중이다 (표 A2.2).

고등교육상 고급자격

- 17 개 OECD 국가 데이터 평균에 의하면, 대학과 유사자격의 교육기관을 통틀은 **A 형 고등교육의 졸업자**가 동 연령층의 32%로 -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스위스는 20% 미만, 호주, 핀란드, 아이슬랜드, 폴란드는 40% 이상이다 (표 A3.1).
- 학력측정을 참작하면, OECD 성년층 **고등교육자 재고**는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확대 대부분이 비교적 소수 국가들의 고등교육 수료자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표 A3.4).
- OECD 국 학생의 평균 3 분의 1 은 고등 교육의 첫해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업을 “중단”**한다 (표 A3.2).
- OECD 국 대학이나 동수준 학력 수료자의 평균 3 분의 1 가량이 사회학, 경영학, 법학 전공자이다. 두번째 인기 있는 **학업분야**는 (보건학, 복지학을 제외한 공학, 제조·건축학, 생학, 물리학, 농학, 수학, 컴퓨터과 등의) 과학분야인데 평균 졸업자 4 명 중 1 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A4.1).
- OECD 국가의 대학이나 동수준 학력 수료자 중, 인류, 예술, 교육,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여자수가 평균 3 분의 2 이상이지만 수학, 컴퓨터과는 3 분의 1 미만, 공학, 제조·건축학은 5 분의 1 미만이다 (표 A4.2).
- 대부분의 OECD 국에서 대학이나 동수준 학위 취득률은 **여자가** 남자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우수하다. 그러나 박사학위 같은 고급연구자격은 여전히 남자가 우세한 상황이다 (표 A4.2).

### 초등 학습 결과의 질

- 9 개 OECD 국가 비교 경우, 1991-2001 년 사이에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4 개국의 **4 학년생** 평균 읽기능력점수는 헝가리가 16 점, 그리스가 41 점까지 더 올라가는 통계상 현저한 향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스웨덴 수준은 동시기에 저하되어 1991 년 513 점이 2001 년 498 점으로 떨어졌다 (표 A5.1).
- 헝가리는 **4 분의 1 상위권 학생**의 수준이 상당 향상하면서 평균점수를 따라잡게 되었다. 반면, 스웨덴은 4 분의 1 상위권 학생 수준이 저하되면서 국가의 총학생 평균 점수가 하락했다 (표 A5.1).
- 1991 년에는 전 9 개 OECD 국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성적을 냈다. 2001 년, 남녀 점수차는 대부분의 OECD 국에서 여학생에게 유리하였고, 이탈리아와 아이슬란드에서 유난히 심했던 이 남녀 점수차가 해소되었다 (표 A5.2).

### 중등교육 말기의 학습결과 질

- OECD 15 세 중 평균 10%는 **5 급 능력수준**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정보 분석, 가정 설정, 전문지식 응용, 의외의 개념 활용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5 급 능력자의 비중은 국가마다 달라, 핀란드, 뉴질랜드는 19%, 멕시코는 1%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15 세 중 평균 12%는 가장 기초적인 **1 급 능력수준**만을 갖추고 있고 6%는 이 수준에 마저 미달된 상황이다 (표 A6.1).
- 일본은 **15 세 수학능력**에서 최고 평균점을 기록하나, 이 점수를 2 개의 또 다른 우수국가인, 한국, 뉴질랜드와 통계상으로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다. **과학능력**에서는 일본, 한국이 최고 평균점을 기록한다 (표 A7.1, A7.2).
- 평균점수는 국가간에 나름대로 차이가 있으나 **국내 15 세 인구간 점수차**는 더욱 심하여 몇 배나 된다. 그러나 국내점수차가 두드러지는 것이 전체점수에서 높은 수준을 획득하는데 있어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오히려 수학능력에서 가장 적은 국내점수차를 기록한 국가 중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5 개 국은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캐나다, 핀란드, 일본, 한국, 4 개국은 수학능력에서 최고 점수 6 순위 안에 속한다 (표 A7.1).

### 학습결과 및 학생태도 성별차

- 읽기능력에서 4 학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통틀어 우수하며, 이 **성별차**이는 15 세에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표 A9.3).
- 대부분의 OECD 국 경우, 15 세 남자가 수학능력에서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과학에서는 이같은 **성별 경향**이 덜 두드러지고 고르지 않다 (표 A9.2).
- 14 세의 **도덕지식**에서는 성별차가 거의 없다 (표 A9.4).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래 직업**에 관해 더 높은 기대를 지향하는 편이나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기대차이 또한 국가마다 대폭 달라진다 (표 A9.1).
- 국가중 약 절반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협동학습**을 선호했고, 대부분의 국가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경쟁학습**을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표 A9.5b).

### 학생 출석과 학교 경영 참여

- 15세 인구 4분의 1 가량은 학교 **소속감**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평균 다섯 중 한 명은 최근에 학교에 결석하거나, 지각 또는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도표 A8.1).
-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학생의 학교 **소속감**은 유난히 강했고 벨기에, 체코공화국, 일본, 한국, 폴란드 학생의 소속감은 평균수준에 미달되었다 (표 A8.1).
-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 **소속감**이 적은 학생의 밀집 정도는 학교마다 무척 달랐으며, 학생 출석상황에서 **학교간 격차**는 훨씬 심했다 (지표 A8).
- 학생 개개 차원에서 볼때, **학생출석과 소속감**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 이는 특별한 소속감 없이도 학교에 규칙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이 많고, 그 반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도표 A8.3).
- 이에 반해, 학교 개개 입장에서 **학생의 소속감과 출석**은 협조적 관계를 이루면서 **학교 성적**과도 밀접한 관계를 조성하는데 이는 학생 출석율이 높은 학교가 학업 성적에서 또한 높은 수준을 획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표 A8.3).
- 학업 성적이 비교적 우수한 학생의 상당수는 여전히 소속감에 무심한 반응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도표 A8.4).

### 교육의 고용 수익

- 대부분의 OECD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취직률**이 높아진다.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고등교육 수료자는 고졸에 비해 취직률이 현저하게 월등하다. 이같은 고졸·비고졸간 취직률 격차는 특히 남자쪽에 심하다 (표 A10.1a).
- 비고졸 **여성의 취직률**은 유난히 낮다. A형고등학력 여자의 취직률은 4개국을 제외한 전 국가에서 75%를 상회하지만, 여전히 전 국가에서 남자보다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A10.1a).
- **취직률**에 반영된 **성별차**는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된다. 비고졸 남녀차는 23%, 최고 학력의 남녀차는 11%이다 (표 A10.1a).

### 개인의 임금 수익

- **교육**은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수 국가에서 추가교육이 갑자기 상당액의 프리미엄을 수반하기 시작하는 수준이 바로 고졸에 있다. 모든 국가에서, 대졸은 고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인다 (표 A11.1a). 임금 격차는 보통 고졸과 그 아래수준 사이에서보다 대졸과 고졸 사이에서 더 뚜렷하다.
- **중졸자 임금**은 고졸 수준의 60-90% 이다 (표 A11.1a).
- 여전히 **여자 임금**은 동등 학력의 **남자 수준**에 뒤진다 (표 A11.1b).

### 교육, 노동 생산성, 경제성장

- 능력시험 결과에 준한 14개 OECD 경제국의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대폭 미친다는 분석을 도출한다. (지표 A12).
- **인적자본재고**의 증가는 노동 생산성을 증진시키며 기술진보에 또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지표 A12).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990-2002년 **일인당 GDP 증가율**의 최소 절반은 노동생산성 증진에 의한 것이었다 (도표 A12.1).
- 평균 학력이 일년 연장될 때마다 1인당 산출량은 3-6% 확대된다는 것이 OECD 전반에 걸친 양상이다 (지표 A12).

---

## 재정자원의 교육 투자

---

### 1인당 교육비

- OECD 1인당 교육비는 초등 4,819\$, 중등 6,688\$, 고등 12,319\$이나, 이같은 평균측정은 국가간 대폭 상이한 교육비 격차의 실태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OECD를 통틀어 측정한 일반 평균을 보면, 고등 교육비가 초등의 2.2배이다 (표 B1.1).
- 연구개발활동을 제외한, **고등교육기관 지출비**는 평균 7,203\$,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터키는 4,000\$ 이하, 호주,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은 8,000\$ 이상이다 (표 B1.1).
- 몇몇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1인당 연간 지출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1인당 총 고등교육비** 부담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이는 고등교육이 학생들의 장기간 참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표 B1.3).
- 교육비 부담이 덜 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교육서비스 질**이 더 낮은 것은 아니다. 1인당 초등 교육비는 적당하고 중등은 더 적게 드는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한국, 영국 같은 경우, OECD 국가 중 15세 학생 주요과목 성적이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표 A6, B1).
- 고등교육에 투자된 금액규모와 고등교육 등록학생자 비중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24개 OECD 국가에서 교육기관에 든 총지출비의 24%가 고등교육에 할애되고 있는 반면, 고등교육은 총학생의 단지 14%를 수용하고 있다 (표 B1.4).
- **1995-2001년**에 호주,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는 초등, 중등, 후중등 비-고등교육에 1인당 지출이 29% 이상 늘어났다. 고등교육비 증가는 급격한 등록생 증가와 항상 동일한 속도를 유지한 것은 아니었다 (표 B1.5).
- 22개 OECD 국가중 7개국에서, **1995-2001년** 사이 고등교육기관 1인당 달러표시 지출비는 수축된 반면 동시기 1인당 GDP는 증가하였다.

### 교육에 투자된 국민소득

- OECD 국가들은 국내총생산의 6.2%를 교육기관에 투자한다.
- **1995-2001년**간, 18개 OECD 국가 중 17개국에서 **교육기관지출의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모두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90년대 초기 추세와는 반대로 교육기관에 든 지출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에 처지는 경향이었다 (표 B2.1a and B2.2).
- 캐나다, 한국, 미국의 **고등교육** 지출비는 각각 GDP의 2%를 상회한다 (표 B2.1b).

### 자금의 공공 및 민간 출처

- **교육기관 자금은 대부분 공공차원에서 여전히 이루어져**, 교육기관 총자금의 88%는 공공출처에 직결된다. 그러나 **민간자금 비중이 큰 국가도 있는데**, 예로 한국(총지출비의 43%), 미국 (3분의 1 정도), 호주 및 일본 (거의 4분의 1)이 있다 (표 B3.1).
- 다수 OECD 국가에서 **초·중등 교육비의 대부분은 정부가 부담하지만** 교육기관 경영은 민간부분에 맡겨진다. 그 결과, 저소득 가정 학생도 교육 참여에 장애를 받지 않으면서 광범위한 학습의 기회를 갖게 된다 (표 B3.2 와 B3.3).
- **고등기관은 초·중등에 비해 민간출처의 자금 비중이 훨씬 높다.** 민간자금의 비중은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가 차지하는 4% 미만부터 한국의 4분의 3 이상을 넘는 수준까지 가는데, 이는 공공보조에 의한 민간지불 역시 포함한 것이다 (표 B3.2b).
- 국가중 3분의 1 경우, - 호주, 벨기에, 캐나다, 헝가리,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미국 - **고등교육기관의 총지출에서 가계를 제한 여타 사체의 비중은 10%를 상회한다** (표 B3.2b).
- **총교육지출의 공공/민간 비율은 국가에 따라 변하는데**, 일부 국가는 공공지출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여타 몇몇 국가는 민간지출이 우세한 경향이다. 대개의 경우, 민간지출이 강세를 보였다 해서 공공지출의 실제 규모가 그만큼 감소된 것은 아니었다 (표 B2.2, B3.2a, B3.2b).

### 국가예산에서 교육 비율

- **OECD 국가는 공공지출의 평균 12.7%를 교육에 투자한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정도에 차이가 있어, 체코공화국, 독일,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의 10% 미만의 수준에서 멕시코 의 24% 까지의 사이를 보인다 (표 B4.1).
- **교육분야에 공공자금조달은 사회적 우선순위에 있는데** 이는 여타 영역에 공공개입이 적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표 B4.1).
- **교육에 든 공공지출은 총공공지출보다 증가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GDP 증가율에는 못 미쳤다.** 1995-2001 년간, 덴마크, 멕시코, 스웨덴의 총공공지출에서 교육에 든 공공지출의 비중이 가장 급격히 성장했다.

### 가계를 위한 정부보조 범위와 종류

- **학생과 가계를 겨누는 공공보조는 주로 고등교육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표 B5.1, B5.2).
- **고등교육에 활용된 공공지출의 평균 17%가 학생, 가계, 여타 사체를 보조하는데 쓰여졌다.**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같은 경우, 공립고등교육 예산에서 정부보조금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한다.
- 교육비에 학생 개인부담이 최소나마 예상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보조금 역할은 더 명백해진다** (지표 B5).
- **학생 보조금 용자제도는 고등교육 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행해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보조금 혜택자는 보조금 사용에 상당한 신중을 기울인다. 보고된 전 OECD 국가에서, 보조금이 주로 교육기관 외부에서 사용되며 3 개 중 한 보조금은 독점적으로 외부에서 사용된다 (표 B5.2).



### 자원종류에 따른 자금분배

- 고등교육비의 평균 4분의 1이 고등교육기관의 **연구개발(R&D)**에 사용된다. 고등교육의 R&D 비중이 OECD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1인당 고등교육비가 국가마다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표 B6.1).
- 고등이하 교육에 든 **경상비용**은 OECD 총지출의 92%를 차지한다.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경우, 이 교육수준에서의 경상비용 중 70% 이상이 **직원보수**에 해당된다 (표 B6.3).

---

## 교육에 진입, 참가, 전진

---

### 기대 학업기간

- 27개 OECD 국가 중 24개국의 **개개인의 정식교육 참여**는 평균 16-20년의 기간을 차지한다. 한편, 이 평균이 국가마다 상이한 이유는 고등학교 등록자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표 C1.1).
- 1995-2002년간 전 OECD 국가에서 **학업기대기간**은 확장 추세를 기록했다 (표 C1.1).
- OECD 국 절반 경우, **3-4세 아동** 중 70% 이상이 유아·초등교육에 취학된 상태이다. 스펙트럼의 다른 가장자리에 위치한 17세 인구는 고등교육에 평균 2.7년을 보낼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C1.2).
- 대다수 OECD 국가에서, **여자의 교육과정 기간**은 남자보다 평균 **0.7년** 더 길 것으로 전망될 수 있다 (표 C1.1).

### 고등교육 진입

- 현재 OECD 국 고등학생은 누구든지 일생동안 **대학이나 동수준 교육과정**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표 C2.1).
- 현재 OECD 국의 **17세 인구는 평균 2.7년** 기간을 고등교육 등록자로서 보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의 2년은 풀타임으로 보낸다. 핀란드, 한국, 미국 학생은 고등과정에 풀타임, 파트타임으로 4년 동안 있을 것을 전망할 수 있다 (표 C2.2).
- 1995-2002년간, 오스트리아, 프랑스 외 모든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 참여**가 증가되었다 (표 C2.2).
- **고등교육 학생의 다수가 공공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나**, 벨기에, 일본, 한국, 네덜란드, 영국의 학생 대부분은 민간경영 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표 C2.3).

### 고등교육의 국제화

- OECD 국가와 본서에 보고된 상대국가들을 통틀면 **전부 190만명의 학생이 2002년 해외에 유학** 중이었다. 이는 그 전 해의 총학생 이동규모를 15% 확대시킨 것이다 (표 C3.6).
- **OECD 지역의 총외국인학생** 중 약 73%가 호주,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5개국에 몰려 있다 (도표 C3.2).
- OECD 국가와 상대국가를 통틀어 유학생의 분포를 보면, **OECD 국가 중 절대수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외국에 제공하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한국, 터키인 반면, 상대국가 중 가장 많은 유학생을 외국에 제공하는 국가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이다 (표 C3.2).

- 각국의 고등교육의 총등록자 규모에 비교하여, OECD 국에 등록된 외국인학생 비중은 호주의 1% 미만 수준에서 스위스 18% 사이에 있다. 고등교육 등록자 수에 비례하여,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영국에서 외국인학생 비중이 가장 높다 (표 C3.1).
-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경우, 외국유학생 6명 중 한명이 고급이론 연구과정에 등록되어 있다 (표 C3.4).
- 호주, 핀란드,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영국의 외국인학생 30% 이상이 과학, 공학의 학업분야에 있다 (표 C3.5).

#### 교육에서 근로자로 변화

- OECD 국의 15 세가 정식교육과정에 있는 기간은 평균 6.5 년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28 개 중 17 개 국가의 이 기간은 대략 6 년에서 7.5 년 사이이다 (표 C4.1a).
- 기대학업기간과 더불어 15 세 청소년은 향후 15 년의 6.4 년은 근로에, 0.8 년은 실업에, 1.3 년은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 상태에서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평균 실업기간에서 국가간의 차이는 가장 크다 (표 C4.1a).
- 27 개 OECD 국가 중 23 개국의 20-24 세 여자는 동갑의 남자보다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20-24 세 남자는 취직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 대다수 OECD 국 경우, 20-24 세 연령층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자의 비중은 50-70%이다 (표 C4.2a).
- 일부 국가에서 교육과 근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한편 여타 국가에서 이들은 동시에 일어난다. 유럽 국가에 비교적 흔한 근로-학업 프로그램은 조직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인정된 직업자격을 획득하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여타국의 경우, 초기교육은 근로와 연관성이 거의 없다 (도표 C4.4).
- 27 개 국가 중 단지 8 개국에서만, 20-24 세 인구 10% 미만이 고졸을 못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11 개국 경우, 이 연령층의 10-18%가 이같은 잠재적 위험상태에 있고, 나머지 8 개국 경우, 이 연령층의 20%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표 C5.1).
- 27 개 중 19 개국에서 이 위험그룹에 속하는 20-24 세 남자 비율은 여자보다 높은 수준이고 이 추세는 특히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덴마크, 룩셈부르크, 터키는 정반대의 추세를 보인다 (표 C5.1).



학생의 수업량

- 한 학생이 7-14 세에 누적인 평균 수업시간은 6,868 시간으로, 7-8 세에 1,576 시간, 9-11 세에 2,510 시간, 12-14 세에 2,782 시간을 소모한다 (표 D1.1).
- OECD 국의 7-8 세 학생은 연간 평균 752 시간의 의무교육을 받고, 788 시간의 교내 지정교육을 받는다. 9-11 세 학생은 7-8 세 학생보다 연간 대략 50 시간의 수업을 더 받기로 예정되어 있고, 12-14 세 학생은 9-11 세 학생보다 연간 대략 100 시간의 수업을 더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상황이 꽤 달라진다 (표 D1.1).
-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수업은 9-11 세 학생 경우 의무교육시간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12-14 세 학생 경우 41%를 차지한다. 교육과정에서 의무과목인 읽기 및 쓰기에 9-11 세 학생이 할애하는 시간은 국가마다 대폭 달라져 포르투갈의 12%에서 슬로박에서의 31%까지 간다 (표 D1.2).

고등학교 입학정책

- 2002 년 학교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마다 그 정도는 달라도 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여부를 결정 짓는데 가장 흔히 학업성적에 기준을 둔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는 학생 80% 이상이 무조건 학업성적에 기준하여 입학이 결정되는 경우이다. 이에 반해 스페인 학생의 10%미만이 여기에 속한다 (표 D5.1).
- 입학정책에 흔히 참작되는 다른 요소들은 교과과정에 내보이는 학생요구 및 관심정도, 학생의 특별지역 거주여부 등이다.
- 학생분류에 가장 흔히 사용된 기준은 학생이 선택한 특정과목이나 프로그램 사항이다. 실제로 73% 학생의 입학여부가 이 기준을 토대로 한다. 이에 반해, 멕시코 학생 거의 절반은 이같은 실행과 무관한 입학을 거친다. 한 반에 가지각색의 능력을 모으려는 목적의 학생분류는 그 다음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정책이고 잇따라 동연령의 학생을 분류하는 정책이 사용된다 (표 D5.3).
- 벨기에의 플랑드르 (Flemish),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경우, 입학 및 학생분류의 과정에서 국제 평균보다 더 엄격한 선발기준을 채택한다. 반면, 스페인, 스웨덴 경우, 입학정책상 선발기준은 국제평균보다 낮고 학생분류정책상 선발기준을 채택하는 빈도 또한 국제평균보다 낮은 형편이다 (도표 D5.3).

학급 크기와 학생/교사 비율

- 초등의 평균 학급크기는 22 명으로 그 정도가 국가마다 다양해 한국은 한 학급당 36 명,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는 이 수의 절반에 못 미친다 (표 D2.1).
- 한 학급 학생수는 초등과 중학교 사이에 평균 2 명 증가하지만, 연간 수업시간의 연장과 교육수준이 같이 증진되면서 학생/교사직원 비율은 줄어드는 실정이다 (표 D2.1).

- 초·중등에 고용된 **교사 및 비교사 직원수**는 1000 명 학생 당, 일본, 한국, 멕시코는 81 명 미만, 프랑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이태리, 미국은 119 명 이상이다 (표 D2.3).

#### 교사 보수

- **중간경력**의 **중학교 교사 보수**는 슬로박의 10,000 \$에서 호주, 독일, 일본, 한국, 스코틀랜드, 스위스, 미국의 40,000\$ 사이에 있다 (표 D3.1).
- **고등학교 교사의 수업 1 시간 당 보수**는 초등 교사보다 평균 40% 높은 수준이나 뉴질랜드, 터키, 미국은 이 차이가 5% 미만에 있고, 초등과 고등학교 수업시간 차이가 가장 큰 스페인은 82% 이상을 차지한다 (표 D3.1).
- 초·중등 모두 경우, **최고경력**의 **교사**는 초보교사보다 평균 70% 높은 보수를 받는데, 이 보수 차이는 한 교사가 경력을 쌓는데 필요한 햇수에 좌우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상당히 달라진다. 한국의 예를 들면, 최고경력 교사는 초보교사보다 거의 3 배의 보수를 받으나 교사가 최고경력에 이르는데 37 년이 걸린다 (표 D3.1).
- **1996-2002** 년간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교사보수**는 **실질적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헝가리, 멕시코가 가장 뚜렷한 증가율을 보였다. 동시기에 스페인 초·중등 교사보수는 실질적인 감소를 겪었다 (표 D3.3).

#### 교사 근무시간

- **공립초등교사의 연간 수업시간** 수는 평균 803 시간이며 일본의 617 시간에서 미국의 1,139 시간 사이이다 (표 D4.2).
- **중학교 교사의 평균 연간 수업시간** 수는 717 시간이며 일본의 513 시간에서 멕시코의 1,167 시간 사이이다 (표 D4.2).
- **고등학교 교사의 평균 연간 수업시간** 수는 674 시간이며 일본의 449 시간에서 미국의 1,121 시간 사이이다 (표 D4.2).
- **교사가 근무시간에서 수업에 소모한 시간**은 중등보다 초등에서 더 높은 수준이다. 초등이나 중등에서 교사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이 수업에 소모된 국가는 단지 소수이다 (표 D4.1, 도표 D4.2).
- **교사 근무시간에 관한 규제**는 국가마다 달라진다. 대개의 국가는 교사에게 특정시간의 근무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한편 다른 국가에서는 단지 주간 수업시간 수만을 규정해 놓은 상태이다 (지표 D4).

#### 중학교 교육에 관한 결정행사의 분배

- 2003 년 자료에 의하면, **결정체제가** 최고로 중앙집권적인 (중앙 그리고/또는 정부국가 차원에서 행사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이며 특히 중앙정부가 결정사항의 88%를 차지하는 그리스와 66%를 차지하는 룩셈부르크는 더욱 그렇다 (표 D6.1).
- 결정체제가 주로 **학교차원에** 밀집된 국가는 체코공화국, 영국, 헝가리, 뉴질랜드, 슬로박이고 특히 네덜란드 경우 모든 결정이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표 D6.1).

- 전 OECD 국의 수업편성에 관한 사항은 학교차원의 결정체제가 주도하고 학교의 플래닝과 조직에 관한 결정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처의 영역이다. 반면 직원경영, 자원배당 및 운영에 관한 결정체제는 국가마다 가지각색의 실태를 보인다 (표 D6.2).
- 학교측의 결정사항 중 완전히 자율적인 상태에서 설정된 것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고, 상위권 행정당국이 정해 놓은 틀에서 행해진 결정사항의 비중 또한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학교측이 결정낸 사항 중 의논에 의한 것은 비교적 드물다. 플래닝, 조직에 관계된 결정이 자율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여타 영역에 관한 결정보다 더 적다 (표 D6.3).
- 1998-2003 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은 결정체제를 점점 지방분권화했고, 체코, 한국, 터키 경우, 이 양상이 유난히 두드러졌다. 벨기에의 프랑스로포와 그리스는 오히려 정반대의 추세를 보였다 (도표 D6.3).

최신의 정규지표에 덧붙여, 본서는 이하의 새 지표를 추가한다:

- **A5: 읽기능력 추세**는 9 세 학생 읽기능력을 남녀 구별 없이, 그리고 성별에 따라 남녀 각기, 차례로 측정하는 것이다.
- **A8: 학생참여도**는 학생의 참여를 두 방면에서 (학생의 학교소속감, 학교 출석) 평가하여 국가마다 그 정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 **D5: 학생의 입학, 배정, 분류정책**은 교육규정이 점차 다양해지는 고등학교 차원에서 사용된 정책을 위주로 검토한다.
- **D6: 교육제도상 결정체제**는 결정패턴을 조사하여 어느 당국이 어느 영역의 결정을 담당하고 이 결정체제는 실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는지 수렴한다.

아울러, 정규지표를 토대로 **새 분석요소** 몇가지를 관찰하여 아래 사항을 반영한다:

- 향후 자격자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요인 (지표 A1)
- 학력과 인력 취직의 관계 형태
- 남녀별 임금과 남녀전체상 임금 수준의 시간경과에 따른 상대적 비교 (A11)
- 각 학년상 교육비와 학생 분포 비교 (B1)
- 교육 민간지출 중 가계부담 지출과 여타 사채부담 지출 분리 (B3)
- 젊은 성인의 연령당 학업등록 패턴 (C1)
- 학생이동 추세와 외국인 학생의 학업분야 분석 (C3)
- 교육에서 근로로 전환이 시간경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 행해지는지 비교 (C4)
- 출생국가에 따른, 자격수준 미달의 청년 프로필 (C5)
- 공공·민간기관의 학생/교사직원 비율 비교 (D2)
- 교사 근무시간 중 수업에 소모된 시간 비율 (D4)

### 편집자 주석

일반적으로 그림들은 달리 언급이 없는 한, 2002 학년도 또는 2001 회계년도를 기준한다. 15 세 학생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과 학생참여도는 PISA 2000 에서 발췌했다.

본서에 소개된 지표는 2004 년 6 월 30 일자 OECD 국 데이터를 참고한다. 향후 어느 국가가 자국 데이터를 수정하여 지표 가치 전체에 변화를 발생시킬 경우, 이는 OECD 웹사이트 [www.oecd.org/edu/eag2004](http://www.oecd.org/edu/eag2004) 에 기재된다.

### 집행개요의 용어풀이

**고급연구 프로그램**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으로 박사학위 같은 고급연구 자격증 획득과 직결된다.

**학력**은 개인이 갖춘 최고학력 수준을 ISCED 의 정의에 따라 표기한 것이다.

**취직률**은 특정인구층 전체에서 고용자의 비중을 표시한다.

**교육기관 지출**은 수업담당의 교육기관에 든 지출과 그렇지 않은 교육기관에 든 지출 모두를 수용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제도의 행정기구에 든 지출이 두번째 부류에 속한다.

**인적자본**은 노동, 능력, 지식이 내포한 생산성 재화를 일컫는다.

**ISCED** 는 국제표준교육분류로 교육 프로그램을 등급에 따라 제각기 분류해 놓는다.

**상대국가**는 OECD/UNESCO 세계교육지표 (WEI) 프로그램의 참여국가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중국,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요르단, 말레이시아,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러시아연합, 스리랑카,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짐바브웨 등이다. 아울러, OECD 교육활동에 옵서버 신분인 이스라엘도 참가한다.

**학업기대기간**은 5 세 아동이 평생에 걸쳐 정식교육의 등록자 상태일 것으로 전망되는 평균기간을 나타낸다.

**A 형 고등교육**은 ISCED 상 5A 등급의 프로그램에 속한다. 이 교육은 이론에 상당한 비중을 두기 때문에 고급연구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의학, 치학, 건축학 같이 최고능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택하는데, 충분한 자격이 부여되며 보통 학사, 석사 및 동등한 수준의 학위를 포함한다.

**B 형 고등교육**은 ISCED 상 5B 등급의 프로그램에 속한다. 이 교육은 A 형 고등교육보다 더 짧은 기간을 요하고, 실용적, 기술적 또는 직업적인 능력면에 치중을 두어서 노동시장으로의 직접진출은 용이하지만, 몇몇 이론적 바탕은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얻을 수 있다.

**고등교육**은 A 형, B 형 프로그램과 고급연구 프로그램을 총 일컫는다.

**교육 총공공지출**은 교육기관을 위한 공공(정부)지출, 가계를 위한 정부보조(생계비 따위), 여타 사체를 위한 정부보조를 포함한다.

**대학 혹은 동등 수준**은 A 형 고등교육과 그 이상을 통 일컫는다.

© OECD 2004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국어 개요는 영어와 불어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원본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OECD 출판물과 개요는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http://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ights@oecd.org](mailto:rights@oecd.org)

Fax: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http://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